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시 30분, 마하나임실에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좋아요. 찬양단도 더 좋아진거 같아요. 많은 친구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언제 1탄을 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있으면 상 줄게요.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냈죠,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잊어주겠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집을 마련하라 했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시민권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라, 그리하여 작은 예수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작은 예수를 보일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뀌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처럼 나무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해 저거해 하라는 거요. 이거를 감당하는거예요. 불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하는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할래요!” 하는거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힘들다고 내려놓는거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 귀찮아서, 잠 더 잘려고, 공부하려고,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아니에요. 수련회 가자고 하는데, 학원 가야되어서, 놀러가야 되어서 안 가는 사람, 연합 수련회라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는 사람? 그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인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나 이런 활동들이 매우 익숙할 거예요. 그러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 익숙함이 매우 무서운거예요. 교회나 세상의 직분, 학생, 교사 등의 직업 잊잖아요. 이게 익숙해서요. 감사함과 긍정성을 잃어버려요.

십자가로 생각 드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돌아가듯 해야 하니까 하는 기계론적 사고를 가지게 되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부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하세요.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익숙함을 깨는 방법은 기도로 성령님께 감화감동을 더욱더 찾아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 학생의 직분, 그리고 가정의 딸과 아들, 그리고 교회에서 임원, 혹은 찬양단, 일반 성도, 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요. 몇주간 설교를 듣다보면 항상 같은 주제로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이 정해져 있고, 성경은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지명하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둘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로지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21~23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뒤에 부활할거야~” 라고 하시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라도 저 말을 했을 거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생각하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이런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갓순이가 갓분 질문을 해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 걱정해 저런 말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네요! 예수님 나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마귀에게 조종 당한거예요. 베드로의 속마음은 “정말 내 예수님이 죽는다고? 안돼 ㅋㅋ 내가 가장 존중하는 분인데 ㅋㅋ” 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자기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오로지 베드로는 “예수가 떠나시면, 나 뭐 먹고 뭐하며 살지? 어?? 어뜨카지! 나 계산하지 않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찌지?” 이러한 걱정과 불만에 계산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고, 자신의 걱정이 그 뜻을 앞서 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섬긴다고, 공부할 시간 줄어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헌금하라 해서 돈 빠져나가는 거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금토일은 항상 하루종일 교회 봉사만 했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중1 때부터 교사로서, 12년동안은 교회 방송부로 섬겼어요. 그러나 제가 실패했나요? 오히려 몇 백배, 몇천배 돌려 받았어요. 당장에 우리 친구들 만난 것도 전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워 하지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아끼고, 계산하는 믿음을 뭐라고 하실까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그것은 쓸모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다가 목숨이 없는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계적인 사람. 교회를 섬겨도 뿌듯하지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삶의 흥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혹은 상계동 등에만 가둬져서 살 겁니까? 미국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일본도 가서 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박스에 가둬져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매우 부적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워해서 바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점차 죽이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교회 오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수련회에 참가하는 시간 등을 아까워 하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 다른 시간이 여러분들을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제발 그런 친구들이 없길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점차 고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찾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수련회 꼭 참가하시고, 주일에는 꼭 교회 나오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평일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없이 편히가는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